

## 의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다 — 신현숙 전 상명대학교 교수



신현숙(전 상명대 국어교육과 교수)

질문자 이경우(서울신문 어문팀장)  
 때 2017. 2. 13.(월) 곳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어학자 신현숙 전 상명대 교수는 2010년 《꿈 소리 바람 소리》라는 시집을 냈다. 대학 다닐 때 쓴 시들이 바탕이 됐는데, 그의 주 관심사인 담화 의미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시 역시 그에게는 담화인 까닭이다. 시를 정리하면서 담화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다. 이 시집은 2014년 영문판으로도 출간됐다. 영문판의 제목은 ‘드림 보이시스 윈드 보이시스(Dream Voices Wind Voices)’이다. 영문판으로도 출간한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 전 교수는 본래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학부 논문은 문학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의미론을 공부하게 됐다. 알고 보니 의미론이 문학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당시 의미론이 철학 쪽으로 기운 것도 있어서 주위에선 국어학에서의 의미론 연구가 가능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동사 ‘받다/얻다/버리다/잃다’의 의미 연구>를 썼

다. 의미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논문은 의미 연구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의미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그는 국내외 학회지에 70여 편의 논문을 실었다. 국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언어 정보와 관련한 논문은 사전 정보를 구축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문들은 연구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1988년 《한글》 200호에 실린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언어 현상>은 북한, 북한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2000년에 출간한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전 교수는 담화인지언어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IAKLE), 국제한국어문화학회(INK), 한국어의미학회에서 이사, 부회장, 회장 등을 맡으면서 학계,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 아동문학에서 의미론으로

이경우 지난해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신현숙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선생님, 시집도 내셨습니다.

신현숙 예, 제 평생 한 번 낸 거죠. 대학 다닐 때 문학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썼던 작품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

고 가지고 다니다가 그래도 정리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내게 된 거죠.

이경우 국어학만 하신 게 아니라 문학 쪽도 하신 거군요.

신현숙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도 가르쳤었는데, 아동문학을 좀 더 전공하고 싶었죠. 학부 논문도 아동문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의미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론이 문학하고 어학하고 철학하고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게 언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고, 프로세스하고 그런 개념이죠. 형태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과학적인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의미론은 약간 철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의미론을 연구할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거 철학에서 하는 거 아니야? 국어학에서 그게 가능해?”라고 하셨죠. 의미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측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과제였죠. 제 박사 논문이 의미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경우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 시절에는 그랬군요.

신현숙 이제 많은 분들이 의미론을 하시잖아요. 제가 박사 논문 공개 발표할 때도 “이거는 철학에서 해야 하지 않아?”라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죠. 실제로도 측정이 좀 가능해졌고요.

이경우 학교에는 아예 안 나가시는 건가요?

신현숙 40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후배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뭐랄까 좀 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오셨군요.

신현숙 그것도 그렇고, 제자를 키워 냈으니까 그 친구들의 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요. 학회 특강 외에 정규적인 수업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선생님께서는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지요.

신현숙 이제 의미망이 일반화됐다고 봐야죠. 사전에도 보입니다.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단어에 대해 방사형으로 제시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의미망이에요.

이경우 선생님께서 초창기에 그걸 하신 거네요?

신현숙 제가 계속 의미망이 먼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도 사전에 반영을 한 거지요. 예를 들어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과 비슷한 ‘감격’, ‘감성’ 등의 낱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동했다’ 하는 것과 ‘감격했다’ 하는 것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하는 작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동했다’라고 하려면 머릿속에 ‘감격’과, 어떤 목록이 짝 뜨는 거죠. 뜨다가 어떤 때는 ‘감동’ 아니면 ‘감격’, 어떤 경우에는 ‘감성’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휘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들어 있는 걸 보여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 이르면 ‘아빠’가 생각나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생각나면 딸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마를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아빠가 뜬다면 엄마하고 아빠는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부모라는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차이는 여성, 남성 이러한 것을 구축해 주는 게 의미망을 만드는 작업이죠.

이경우 의미망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어휘 교육에서는 꽤 효과적이겠습니다.

신현숙 굉장히 유용하죠.

- 이경우 한국어 교육에서 의미망을 활용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신현숙 예를 들어 ‘사과’를 가르친다면 사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도, 감도 다 섞어서 가르치는데, 그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는 거죠. 사과를 가르치면 어떤 친구는 “아, 사과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친구 머릿속에는 네트워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애플(Apple)’과 연결되고요. 사과를 많이 먹어 본 친구는 ‘부사’도 나오겠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사과 충위와 부사 충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상하 관계로 연결되는 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네트워크로 가르치면 더 효율적으로 어휘를 습득시킬 수 있죠.
- 이경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휘 교육을 많이 하는군요.
- 신현숙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아마 선생님도 배우셨을 거예요. 비슷한말 반대말 찾는 거요. 그게 전에는 일대일의 네트워크였는데 이제 조금 다양화된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의미망을 구축해 놓으면 자동 번역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한국어 의미망은 다섯 개가 있고, 일본어는 세 개가 있을 때, 자동 번역기라든지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관계를 정확하게 묶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자동 번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 이경우 그러면 의미망 연구하시면서 그쪽도 같이 들여다보셨겠습니까.
- 신현숙 오, 그럼요. 보통 인지언어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지언어학을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언어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경우 지금까지는 자동 번역이라는 게 주로 단어 위주로 하는 것이어서 만족스럽지 않았었습니다.
- 신현숙 그랬죠. 그리고 한국어 자동 번역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묘한 차이가 안 밝혀진 데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는 꽤 있는데 미묘한 차이라든지 감정 이러한 것은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해 감정에 대한 풀이를 하려면 상당히 치밀하게 해야 하는 거죠. ‘불그스름하다’와 ‘불그죽죽하다’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 거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색채어가 언뜻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의 차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덜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경우 계속 연구가 되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현숙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 무궁무진해서 좋다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 연구를 하게 되면 언어는 또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어휘하고 지금 쓰는 어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끝은 없을 것 같아요. 100% 가능하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이경우 저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연구하는 것을 기계가 학습하면서 발달시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내다봤습니다.

신현숙 그렇죠. 그런데 기계가 학습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입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출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입력과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1992년쯤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실제 대화를 기계가 읽게 했을 때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를 연구했어요. 호텔 예약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만 컴퓨터 용지가 거의 한 박스 나왔어요. 아주 어렵게 진행됐죠. 요즘은 호텔 예약할 때 자동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음성 인식도, 문자 인식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 이경우 의미 쪽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 신현숙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로봇한테 넣어 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로봇이 대신 해 줬으면 좋을 수 있죠. 그러한 부분을 하려다 보니 인지과학이 나오게 됩니다. 인지과학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되겠죠. 시리(Siri)<sup>1)</sup>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 “알람 좀 맞춰 줘.”라고 말하는데 “몇 시에 맞추세요?”라고 답하는 건 제 목소리를 인식하고, 언어학적 의미를 분석해 또 다른 문장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가 계속해서 바뀔 것 아니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말이죠. 그중에서 딱 뽑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음성학, 의미론, 어휘론, 통사론의 연구 결과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이경우 그 데이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겠네요.
- 신현숙 그렇죠. 바로 그 데이터가 아주 많아야 되는데, 컴퓨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 이경우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한국어와 관련해서 자료가 그리 많이 축적된 게 아니죠?
- 신현숙 영어 자동 번역하고 한국어 자동 번역을 본다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죠.

### 한국어에는 감정적 어휘가 많다

- 이경우 국가 차원에서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많이 진행돼 있는 거죠?

1) 휴대 전화 제조업체인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현숙 훨씬 많이 돼 있죠. 우리가 그게 더 어려운 건 한국어가 가진 특징 때문이기도 해요.

이경우 어떤 특징들 때문인지요?

신현숙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감정적인 어휘가 많아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단어라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까무잡잡하다’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지가 필요한 거죠. ‘새까맣다’와는 또 차이가 있는데, 미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우 현재 인공지능과 자동 번역은 얼마나 발전했다고 보시는지요. 전망은 어떤가요?

신현숙 언어 정보 또는 언어문화 정보, 특히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축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나 자동 번역의 성과도 달리 나타나겠죠. 최근의 경험처럼 언어 정보 또는 언어문화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나 자동 번역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한국어 정보와 함께 한국 언어문화 정보가 명시적으로 구축된다면 한국어를 활용한 인공지능이나 자동 번역 분야도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 분야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지요?

신현숙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한국어 정보와 한국 언어문화 정보를 명시적으로 구축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자동 번역기 개발은 물론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어 학습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언어문화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의 연구 성과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도구나 교재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죠.

**이경우** 선생님 연구 업적을 살펴보니 국어 담화 의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에 관한 것이지요?

**신현숙** 언어 연구는 단어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사전에서 단어를 뽑아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는 앞에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층위가 높아졌습니다. 문장 층위로 높아진 거죠. 처음에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다가 그다음에는 단어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다음에는 이 문장이 잘된 문장인지 자연스럽게 않은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참 잘했어.”라고 했을 때 ‘참 잘했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일을 잘해서 “참 잘했어.”라고 하는 것과 어제 가방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참 잘했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뽑아내려면 상황을 다 줘야 되는 거죠. ‘수우미양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 끝이죠. 그런데 ‘가나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가 맨 앞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주지 않고 “‘가’를 받았어.”라고 하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잘했어.”라고 할 때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려면 담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경우** 담화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현숙** 한 단락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화에서 운동화가 첫 장면에 나왔다고 하죠. 그 운동화가 왜 나왔는지 처음에는 모르죠. 나중에 범인을 밝히다가 운동화가 증거로 나왔다면, 그 영화 전체를 봐야지 그 운동화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화는 두 문장일 수도, 한 문장일 수도, 어떤 경우에는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려면 언어 형식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에 시간이나, 장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인지하는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장면마다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 한국어 학습자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경우 한국어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신현숙 언어 교육에서 문화 정보는 매우 중요하죠. 어휘는 문화 정보와 사회 정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정보와 문화 정보를 나누어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김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 나아가서는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외국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밥을 먹자고 해 놓고 얘기가 없다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고 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의미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경우 이런 게 다 언어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군요.

신현숙 네, 다 언어문화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내가 발화를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학생들이 저에게 “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죠. 다른 신 선생님이 있다면 혹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죠. 이렇게 미묘한 문화적인 차이, 감정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다 언어문화 속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경우 그걸 인식시키려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신현숙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너 나이가 몇이나?”라고 묻는 것은 괜찮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너 나이가 몇이나?”라고 묻는 것은 좀 이상한 거라는 게 인공지능한테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경우 문장을 아무리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해도 바탕에 깔린 문화를 모르면 제대로 대화를 나눈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신현숙 안 되는 거죠.

이경우 언어 교육에서 언어 자체와 문화는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신현숙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아직 한국어를 안 배운 학생이었는데요. 저한테 처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같이 숙이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굿모닝’ 할 때는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음식 문화에서는 음식 예절이, 밥상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 모든 인간관계는 의미 생성과 해석의 관계

이경우 의미를 공부한다는 것이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신현숙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뜨고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의미 해석이죠. “지금 몇 시니까 늦었네.” 아니면 “늦지 않았네.”라든지, 티브이를 켜면 그것도 의미 생성과 해석을 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미 생성과 해석의 관계라고 봐야겠죠.

이경우 선생님 그런데 국어나 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재미없다는 말들

을 하기도 합니다.

신현숙 아, 그게 지나치게 어떤 규범을 강조해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학생들이 외우게만 되는 거예요. 저는 외우는 수업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하죠.

이경우 외국인한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신현숙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사실 문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교정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딱 틀에 박힌 걸 하다 보니까 국어 시간이 재미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어 교육 쪽에서도 문화적인 맥락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쓸 때 국어 하면 국어에 관한 얘기만 했거든요.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음악이나 미술, 드라마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언어로 된 것은 전부 다 국어 교육의 자료이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판도 흥미 있어 합니다. 간판에 관한 논문도 몇 편 썼죠. 어떤 식당은 ‘이모네’가 들어가 있고, 어떤 식당은 ‘고모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네’하고 ‘고모네’ 가운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은가요?

이경우 ‘이모네’가 더 많은가요?

신현숙 네, 이모네가 더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고모가 반찬을 해 준 기억보다는 이모가 해 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이모라고 하면 엄마 쪽이기 때문에 이게 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 문화하고 관련지을 수 있는 거겠죠. 요새는 ‘충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털보네’ 이런 것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게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음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간판이 달라지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경우** 그런데 선생님, 옛날에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구분했지만, 최근에는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현숙**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어만 쓰는 사람만 사는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국어 교육과 외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구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죠.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도 국어 교육 현장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학원의 강좌명은 ‘국어 의미론’보다 ‘한국어 의미론’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교수·학습 목표나 교수·학습 대상에 따라 교수·학습 범위나 순서 또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교수·학습 정보나 내용은 같아야 하고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배웠는데, 지금은 학문적인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려고 배우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려고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면 상당한 혼란이 오는 거죠. 예전처럼 생활 한국어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목표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같은 정보를 습득하고 동일한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경우** 그럼 결혼해서 이주한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가요?

**신현숙**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정보를 배워야 그

엄마나 아빠가 가르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언제나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을 나눠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중심으로 ‘국어’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국어 의미론’이라고 할 때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국어가 아니잖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이에요. 이유는 다른 언어들이 죽 있는데, 거기서 ‘국어’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은 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죠. 한국 사람이 조금 더 많으니까 ‘국어’로 쓰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가 더 커진다면 중학교에서 국어라고 쓰기가 미안할 수도 있죠.

**이경우** 한국어를 교육하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숙** 아쉬운 것 있어요. 제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할 때 한국어 교육자라는 개념으로 국내외 연수도 많이 주관했습니다. 이제 연수 부분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세종학당이라는 열매까지 맺어서 아주 활발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교사는 교육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임용고사에 합격하면 국어 교사가 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한국어 교사는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제도화되고 정책적으로 더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 학생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 국내에도 세종학당을 설치한다면

이경우 정부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건가요.

신현숙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마다 양상이 아주 달라지고 있는 거죠. 학습자들의 양상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중국에서 왕창 들어오면 중국어 학습자가 많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몽골에서 들어오면 몽골…….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약간 우후죽순 격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어떤 학교는 그냥 비자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지원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경우 제도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보다는 예산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신현숙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이겠죠. 지금은 등록금 가지고 움직이니까 들쭉날쭉한 거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학생이 많이 오는 학교는 좀 넉넉하고, 학생이 적게 오는 학교는 좀 열악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경우 정부에서 더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신현숙 그래도 그게 많이 설득이 돼서 세종학당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세종학당도 좀 더 확장해야 합니다. 세종학당을 외국에만 두지 말고 국내에도 학교마다 하나씩 둔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경우 세종학당을 국내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신현숙 그렇죠. 만약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잘한다면 연세대학교에 세종학당을 같이 운영하게 하는 거죠. 안산 지역에 외국인 학생이

많다면 그쪽에 세종학당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경우 세종학당은 당연히 해외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신현숙 국내에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잘하면 그 대학도 더 살고, 지역에 있는 외국 학생들도 큰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등록비가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배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오는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생활이 어렵거나 직장이 만만치 않은 친구들은 거의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못 하죠. 그냥 친구가 얘기하는 것 듣고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그들의 노동력을 높여 준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신현숙 그럼요. 그러면 사실 그 자손들도 우리가 많은 돈 안 들고고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사실 그분들한테도 큰 짐을 지워 주는 거죠. 정부에서 일부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체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경우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교재 상황은 어떤지요.

신현숙 교재는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코이카에서도 하고, 국립국어원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교재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만든 교재들은 엄청 비쌌습니다. 거의 3만 원, 4만 원 이러거든요. 이러면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교재를 국가가 정확하고 다양하게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재가 있긴 한데 제한돼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만들어져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접근하지 않으면 국내 학생들도 안 하는데, 외국 학생들은 당연히 안 하죠.

**이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학습지, 국어 잡지와 같은 것들을 선생님께서 하시면 어떨지요.

**신현숙** 그런 것도 굉장히 좋죠. 온라인상으로도 한번 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언어의 팁 정도라도 넣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은 논문이었으니까 그것을 약간 칼럼 비슷하게 정리해 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경우**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 연구에 힘쓰셨습니다. 후학들도 많이 양성 하셨고요. 선생님께 한국어 교육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신현숙**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국가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과 교육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죠. 또 한국어 학습자나 교육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하려고 했고요.

**이경우** 앞으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신현숙**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전에 외국인을 위한 사전을 만들었어요. 오래됐죠. 2000년이니까 16년 정도 됐네요. 그걸 바탕으로 요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의미를 중심으로 만든 사전이죠. 그 사전을 만들 당시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한국의 ‘과일’ 하면 과일끼리 전부 모아 놓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또 음식이면 음식과 관련된 그릇이라든지 먹는 동작, 마시는 것 등 개념들을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5만 단

어 정도 했는데 혼자 다 못 했죠. 그리고 한국어판, 영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이 나왔죠.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은 못 했거든요.

이경우 40년 넘게 한국어 교육, 한국어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신현숙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다른 전공을 했으면 제 마음대로 못 했겠죠. 영어를 전공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했을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구하기에는 직관이 없으니까 아주 어려웠을 테죠. 또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수학은 다른 나라에도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국어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 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요. 제자들도 많이 키웠고, 학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학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바깥으로 알릴 것이냐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경우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숙 고맙습니다.